

삼성, 광주에 HVAC 생산라인 세운다… 2400억 대규모 투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협약
2028년 초부터 핵심장비 생산
“차별화된 HVAC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가 광주에 2400억원을 들여 냉난방공조(HVAC) 생산라인을 짓는다.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기술을 국내에 접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19일 플렉트그룹코리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청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 임성택 플렉트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규 라인은 광주사업장 제3캠퍼스에 들어선다. 연면적 2만1800㎡로 축구장 3개 크기다. 1989년 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의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다.

◆ 액체냉각 핵심 장비 국내 생산

생산은 2028년 초 시작하며 핵심 품목



(왼쪽부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김철기 부사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플렉트그룹코리아 임성택 대표(삼성전자 DA사업부 HVAC사업팀장). /삼성전자

은 냉각수 분배장치(CDU)다. CDU는 냉방 설비인 칠러와 서버를 직접 식히는 쿨드 플레이트를 잇는 장비로, 냉각수의 압력과 온도를 정밀 제어해 서버에 공급한다. 열을 흡수한 냉각수는 CDU에서 열교환을 거쳐 다시 칠러로 돌아간다.

액체냉각이 부상한 배경에는 발열 문제가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얹은 AI 서버는 랙 단위 전력밀도가 높아 공기 냉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스틱스MRC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최적화 시장이 2026년 213억달러에서 연평균 25.8% 성장해 2034년 1335억달러(약 18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에서는 공기 냉각용 팬 윌 유닛(WU)과 컴퓨터용 공기 처리 장치(CRAH), 대형 건축물용 공기조화기(AHU)도 함께 생산한다. 액체냉각과 공기냉각을 한 곳에서 대응하는 구조다.

◆ 플렉트 인수 효과 본격

플렉트그룹은 100여년 역사의 공조 전문기업이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14개 생산라인과 8개 연구소를 운영하며 데이터센터와 산업용 제조시설, 호텔·공항 등에 중앙공조 장비를 공급한다. 광주 라인은 15번째 생산거점이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5억유로에 플렉트그룹을 인수했다. 이달 12일에는 인도 푸네에 생산라인을 준공했고, 이번에 국내 투자까지 확정하며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

플렉트그룹의 중앙공조 기술에 기업간 거래(B2B) 제어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와 빌딩 통합 솔루션을 결합하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글로벌 HVAC 시장 선도 기업으

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 적자 DX의 활로

이번 투자는 DX부문의 실적 부진과도 맞물린다. DX부문은 2분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공조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냉각 수요가 늘어나는 성장 사업이다. 삼성전자가 광주 생산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선 배경이다.

광주사업장의 역할도 확대된다. 냉방고와 세탁건조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생산해온 광주사업장은 앞으로 데이터센터용 공조 장비까지 맡게 된다.

김철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HVAC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번 광주 생산라인 구축은 차별화된 HVAC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유럽 완성차 ‘텔레매틱스 솔루션’ 적용

5G 표준 R16 기반 속도·안정성 높여
SDV·AIDV 시대 전장부품 주도권 강화

LG전자가 차세대 5G 통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전장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최신 5G 표준인 R16을 기반으로 통신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에 필요한 고도화된 연결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5G 최신 통신표준인 R16 기반 스마트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유럽 완성차 양산 모델에 처음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R16 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 솔루션이 유럽 양산 차량에 적용된 것은 업계 최초다.

R16은 5G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R15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인 두 번째 표준이다. 데이터 전송 신뢰성을 높이고 지연시간을 줄이는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한다. 데이터 오류율은 0.001%, 텔레매틱스 모듈과 기지국 사이의 데이터 전

송 지연시간은 0.001초(1ms)로 각각 4G 대비 100배, 5배 개선했다.

R16 기반 스마트 텔레매틱스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Over-the-Air), 차량과 사물·인프라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V2X(Vehicle-to-Everything),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한다. 빠른 응답과 안정적인 통신이 필요한 자율주행에도 적합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은 LG전자의 SDV·AIDV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를 고도화하는 기반으로도 활용된다. LG 알파웨어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플레이웨어’, AR/MR·AI 기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웨어’, AI 알고리즘과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ADA S 솔루션 ‘비전웨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드웨어 구조도 개선했다. LG전자는 통신 모듈과 최대 12개의 안테나를 하나의 하드웨어로 결합해 부품 간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 손실을 최소화했다.

배선 구조와 공간 배치를 단순화해 차량 내 설치 공간과 원가 부담을 줄이고, 외부로 돌출되는 샤크핀 안테나를 없애 외관 디자인의 자유도도 높였다.

LG전자는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 추정치 기준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 SDV·AIDV 시대 전장 부품사업 주도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차세대 차량용 통신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 퀄컴 주도로 출범한 ‘6G 연합’에 커넥티드 모빌리티 분야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AI 기반 인포테인먼트, 차량·모바일·홈·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기술, SDV 환경에서의 고성능 컴퓨팅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공동 연구 중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사장은 “모빌리티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차량용 통신 분야에서 혁신 솔루션을 지속 선보여 SDV를 넘어 AIDV 시대에도 텔레매틱스 시장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건설불황에 철근 수요 급감… 철강업계, 감산기조 강화

비수기 진입 후 가격하락·재고증가 겹쳐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현대제철이 생산 조절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상반기 감산과 수출 확대 등으로 철근 가격이 반등했지만 수익성이 여전히 손익분기점(BEP)을 밑도는 상황에서, 비수기 진입 이후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까지 겹치고 있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달 인천공장을 매주 4일간 휴동하며 철근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포항공장도 이달 말 5일간 추가 비가동에 들어가는 등 감산 기조를 강화한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부터 설비 감축과 생산체제 재편을 병행해왔다. 지난 1월 인천

공장 90t 전기로와 소형압연 설비 폐쇄를 결정하면서 연간 철근 압연능력을 335만t에서 260만t으로 75만t(22.4%) 줄였다.

포항1공장도 연산 80만t 규모의 철근·특수강 봉강 혼합 라인을 철근 전용으로 전환하고 특수강 봉강 생산은 당진제철소로 이전했다. 생산 품목을 분리해 시장 상황에 따라 가동률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한 것이다.

상반기 철근 가격은 반등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철근 수출 지속과 제강사 공급 조절, 주요 원료가격 상승으로 봉형강 제품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 상승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철근 수익성은 여전

히 BEP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철근 가격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철근 유통가격은 지난 6월 톤당 89만5000원에서 7월 88만5000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 87만원까지 낮아졌다.

상반기 국내 철근 수요는 329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올해 연간 수요도 659만t으로 추산돼 3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도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재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수요가 추가로 악화할 만한 요인이 크지 않아 최소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며 “개선된다면 소폭이나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엔솔, 美 랜싱공장 가동… ESS 수요 대응

5대 생산거점 완성… 북미사업 박차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북미 생산체계를 확대했다. 연간 35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랜싱 공장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전기차용 삼원계(NCM)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며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미시간 랜싱 공장’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랜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7번째 생산공장이다. ESS용 LFP 배터리와 전기차용 NCM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운영되며 연간 35GWh 이상의 배터리 셀 생산능력을 갖춘 예정이다.

랜싱 공장 가동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시장을 겨냥한 5대 생산거점 구축도 마무리했다. 5대 거점은 단독 생산 시설인 미시간 랜싱·홀랜드 공장과 캐나다 넥스트스타에너지 온타리오 공장, 합작 생산시설인 혼다와의 L-H배터리컴퍼니 오하이오 공장과 GM과의 얼티엄셀즈 테네시 공장으로 구성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년 반 동안 전략적 리밸런싱을 추진하며 북미 생산시설을 재편해 왔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변화에 맞춰 기존 생산시설을 ESS용으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열린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전환하고 투자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단독 공장과 합작공장을 연계한 생산망을 구축했다. 북미에 이처럼 다각화된 ESS 생산체계를 갖춘 글로벌 배터리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5대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북미에서 50GWh 이상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랜싱 공장 가동은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사업의 성장을 가속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 모빌리티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의 미래를 뒷받침할 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배터리 생태계와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그룹, 中 롱바이그룹 리튬 공급

이차전지소재 사업 협력 업무협약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양극재 선도기업인 중국 롱바이그룹에 배터리급 리튬 공급을 추진한다. 광석·염수·폐배터리에서 생산한 리튬을 공급하고 자원 재활용과 이차전지소재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롱바이그룹과 이차전지소재 사업 협

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포스코그룹이 생산하는 광석·염수·리사이클링 리튬의 배터리급 제품 공급을 추진한다.

포스코필리바리튬솔루션의 광석리튬과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염수리튬, 포스코HY클린메탈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등이 대상이다.

/유혜온 기자